

화순·함평·완도·보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선정

농식품부 4년간 지원...지역특화 자원 상품화·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기대

농식품부의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전국 20개 시·군 중 화순·함평·완도·보성 4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 동안 지역 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 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원한 시설을 비롯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 배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혁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4개 군 중 화순, 함평, 완도 3개

군은 내년부터 4년간 지원되며, 예비지구인 보성은 오는 2022년부터 4년간 각각 70억원씩 총 28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은 지역 산업기반 구축 R&D사업, 시설·장비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한 지역특화 자원의 상품화를 유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비해 사업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도 자체 심사에서도 사업계획 장·단점 분석과 보완사항 위주로 심사를 펼쳐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중앙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이 같은 결과 중앙 평가위원들은 "사업 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추진단에 참여한 지역 내 청년활동가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사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하용 전남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모결과 전문가들의 사전 컨설팅과 도 자체 심사, 컨설팅 심사 등을 실시한 것이 주요했다"며 "앞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4개군이 선정돼 15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도축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적극 실천'
전남도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내 도축장 19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이행상태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운송차량 등 모든 출입차량이 반드시 소독시설을 거치는지 여부, 운전자 마스크 착용 확인을 비롯 발열체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장으로 진입하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전남도 제공>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에 영광 지내들영농법인

전남도는 영광군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행안부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서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광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은 행안부장관 우수 마을기업 인증패를 받아 사업개발비 7000만원을 비롯 기업 상품에 대한 판로, 마케팅 지원 등 혜택도 받게 된다.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된 행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표 우수 마을기업을 추천받아 마을기업 심사위원을 거쳐 선발된다.

21명의 마을주인이 설립한 영광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은 보리산업특구 지역에서 보리 계약재배 및 수매로 1차, 2차 상품을 개발해 지난해 연매출액 8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농업인 40여 농가의 농산물을 수매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사업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전남에는 278개소가 운영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남도장터 '한가위 특판' 최대 50% 적립

전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남도장터'에서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촉진 특판 행사를 펼친다.

이번 특판에는 1~2만 원대 알뜰 선물세트부터 한우·전복·굴비와 식품명인 제품, 도시상품집인 증 제품 등 8~9만 원대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총 596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물을 제품과 제수용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남도장터 매출액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도 코로나19 및 후유 피해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남도장터 전 품목을 5만원 이상 구매시 1인당 30% 적립금(최대 1만5000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농산물 20% 소비쿠폰으로 1인당 최대 1만 원을 모바일 제로페이로 추가 지급하는 등 최대 반값(50%)의 적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남도장터 300억 달성 염원 3333!' 이벤트도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남도장터 적립금 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남도장터와 업무협약

1천만원 상당 상품권 협찬 받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최근 전남도 온라인 대표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도장터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협찬받게 된다. 협찬받은 상품권은 오는 24일 목포를 중심으로 개최될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의 관람객 유치에 활용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관람객 유치 및 남도장터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전남 농수축산물 판촉을 위한 남도장터 모바일 상품권 지원, 기타 정책·홍보지원 등으로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은 '부릉부릉 수목 시동'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 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와 진도 운림산방에서 개최된다. 회화, 디자인, 그래픽, 영상 등의 다양한 예술장르 속에 수목의 정신을



반영한 다채로운 전시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한편, 사무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3D 온라인 가상현실관 등 언택트, 온택트 형태의 수목 전시관을 개막에 맞춰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매일 1회 이상 전문방역 실시와 최대 입장인원 제한 등 철저한 방역규칙을 세우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

전남도가 지난 8월까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작용,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동향에서도 나타났다. 통계청 2분기 호남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남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 등이 줄어 다소 감소했으나 소매판매액지수는 110.6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용차와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올 1월 촉발된 코로나19 영향으로 팬데믹 현상과 도내 전염병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도민 8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5376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금 19만6927가구 907억원, 신용카드 40만5401가구 2718억원, 선불카드 5만1459가구 331억원, 상품권 20

만137가구 1307억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과 안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TF팀을 구성·운영했다. 시·군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창구를 개설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은 공직자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빠른 재난지원금 지원에 일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마감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만3394가구 114억원에 대해서는 자동 기부처리에 고용인력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9개소 선정

전남도가 내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9개소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 57%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지만 73%가 배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지난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도입, 소비자 수요가 많은 친환경 과수·채소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과수 또는 채소를 1ha이상 재배중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 친환경 과수·채소 인증면적 확대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등을 개

소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 8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1차 서류·현장심사를 거친 후 2차 서면평가 통해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결과 나주시 장호림 농가, 광양시 광양원예농원, 담양군 국윤채 농가, 강진군 강진농협, 해남군 강만호 농가, 진도군 한운정 농가 등 9개소가 선정됐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3~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으로 도내 친환경 과수·채소 농가와 협력해 생산·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